

저소득층 지원 최저교육비 100% 인상

국립대 내진보강·석면제거에 1220억 투입 국가장학금 3조9986억 투입... 전년비 28억 ↑

교육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최저교육비란 자야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교육부는 경제적 요인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도 예산 75조2052억원 가운데 교육급여 예산으로 1317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25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예초 교육부는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금액을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1년 앞당겼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1년 동안 초·중·고등학생은 학용품비 7만1000원과 부교재비 13만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학용품비는 전년(5만원)대비 42%, 부교재비는 전년(6만6000원)대비 100% 늘어난다. 초·중·고등학생 최저교육비(학용품비 7만494원·부교재비 13만1208원)와 비교하면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다.

중고생은 1년 동안 학용품비 8만1000원과 부교재비 20만9000원을 받게 된다. 학용품비는 전년(5만7000원)보다 42%, 부교재비는 전년(10만5000원)보다 99% 오른다. 중고생 최저교육비(학용품비 8만826원·부교재비 20만8860원)와 비교하면 최저교육비의 100% 이상 인상됐다.

교육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

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지진·석면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도 예산으로 122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2019년도 고등교육 부문 예산 9조9537억원 가운데 국립대학 건물의 내진보강과 석면제거를 위해 각각 1000억원과 220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내년 1000억원을 투자해 국립대학 건물의 내진보강 확보 비율을 기존 56.7%에서 69.1%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4997억원(매년 1000억원)을 투입해 내진보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또 220억원을 투입해 국립대학 건물의 석면제거 비율을 기존 78.1%에서 81.3%로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2204억원(매년 220억원)을 투입해 석면제거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교육 부문

예산 가운데 약 4조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내년도 국가장학금으로 전년(3조9958억원)보다 28억원 늘어난 3조9986억원을 투입한다.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 교내 근로 단가를 인상하고, 교외 근로 선발 인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장학금 교내 근로 시간당 단가는 2018년 800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올리고, 교외 근로 선발인원은 2018년 4만명에서 2019년 4만6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 직원이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II 유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이 장학금을 신설했다. 올해 288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576억원을 지원해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없이 언제든지 학습을 이어나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시스



전북도교육문화회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책 한 잔 어때?'라는 슬로건으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9월에는 '책 한 잔 어때?'

전북교육문화회관, 강연·버블쇼 등 문화행사 다채

전북도교육문화회관(관장 박해정)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작가와의 만남, 버블쇼 공연, 체험활동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모해 선정한 '책 한 잔 어때?'라는 슬로건으로 친구와 편안하게 차 한 잔 하듯이 독서를 즐기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학생과 지역주민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서 생활화를 위해 책 선택을 사연을 응모하는 '도서관이 사랑을 싣고, 짧은 글쓰기 나열에 도서관이란?' 대출점지된 '연체자 풀어주기', '다독자 선정', '달 사베트 그림책 원화 전시' 등이 진행된다.

특히, 9월 1일 '보통 토끼의 추석' 그림책의 감미혜 작가가 들려주는 추석과 명절 이야기 강연과 18일 '신통방통 세 가지 말' 그림책의 김경희 작가의 1인 인형극

공연과 강연이 각각 예정돼 있어, 작가를 직접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니온 매직·버블·벌룬쇼 공연이 9월 8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드로잉 매직쇼' 공연이 15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유익원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박해정 관장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도서관에서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책과 도서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월 독서의 달 행사 및 공연에 대한 자세한 일정 안내와 신청방법은 회관 누리집(nbk.go.kr/jc)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독서교육과 ☎(770-1648)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받으면 50만원 과태료 부과

내달 3일부터 적용

6개월 이내·2년마다 1회씩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적용시기는 9월3일부터다. 제정·밀양 화재 참사 이후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과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법정(실무)교육 주기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이며 이후 2년마다 1회씩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여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방청은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부과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다시 받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만약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행정의 통일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고있다.

태료 부과와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해 시·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단순 제재의 강화가 아니라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시스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고용서비스 역량 등을 사전에 평

고용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제 시행

가해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관에게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올해 우선 종합 취업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부분의 기관 15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은 3년간(신규 기관은 1년) 부여한다.

고용부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시행 시 인증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

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종사자 대상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서비스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전북교육청, 맞춤형 감사교육으로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이 감사담당공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기우고, 감사업무 담당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감사교육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감사원 산하 감사교육원에 의뢰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분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감사교육을 진행한다. 28일 밝혔다. 장소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대강당이다.

이번 교육에는 이종운·강인욱 감사교육원 교수, 고동갑·김숙동·양주석 감사원 수석감사관, 유종남 한국광물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김현태 감사교육원 과장 등 7명이 강사

로 나선다.

이들은 자체감사실무에서부터 회계감사관의 책임과 사례, 직무감찰기법 및 사례, 감사보고서 작성 이론 및 사례, 교육청 회계감사사례 등 감사이론은 물론 사례중심의 최신 감사기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맞춤형 감사교육을 통해 감사사태를 공유하고, 최근 감사기법을 배움으로써 감사현장에서 공급했던 내용들을 이해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사역량 교육을 추진,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평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